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인간과 죄, 세션 9, 죄의 교리, DA 카슨, 죄의 본질적 의미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인간과 죄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9, 죄의 교리, DA 카슨, 죄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기도. 자비로운 아버지, 우리는 당신 앞에 머리를 숙이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 당신의 임재에 들어갑니다. 그는 우리에게 접근 권한을 줍니다.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 진실성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어려운 것들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십시오.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그리고 인간의 구성이나 구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죄의 교리로 넘어가서 DA 카슨의 에세이, *죄의 현대적 의미* 로 시작합니다.

카슨은 놀랍습니다. 그는 매우 재능이 있고, 그는 수년간 주님을 충실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는 그걸로 끝내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Carson은 Christopher Morgan과 제가 편집한 책의 서문을 썼습니다. Morgan은 California Baptist University의 신학 교수이자 기독교 사역 대학 학장입니다. 우리는 Crossway를 위해 Theology in Community라는 책 시리즈를 썼는데,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학자들이 함께 일하는 그룹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소개를 했고, 그런 다음 구약 전문가들이 구약에서 그 주제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체계 신학에 대한 장을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성경 신학에 대한 장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주제와 주제에 대한 특별 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탄에 대한 장은 죄에 대한 책에서 가치가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장 등등.

죄의 현대적 의미, DA 카슨. 죄의 본질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를 구별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물론 이 둘은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죄가 성경에서, 기독교 사상의 전체 구조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상기해야 합니다. 그 현대적 의미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시대와 역사적 위치의 특성 중 일부를 어떻게 다루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전자가 후자에 얽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제목입니다.

실제로, 죄가 복음에 대한 성경적 충실한 이해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방식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 영원한 중요성을 주장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현대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죄에 대한 성숙한 이해가 우리 자신의 문화적 맥락에 예언적이고 강력하게 말하는 방식을 성찰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제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첫째, 죄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는 구원이 우리를 구출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와 해결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를 설명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지 않고는 십자가가 무엇을 성취하는지 깊이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은 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죄는 성경의 줄거리를 확립합니다. 이 논의에서 죄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불의, 범법, 악, 우상 숭배 등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지만, 맥락상 그 단어가 더 제한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죄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문제를 구성합니다. . 갈등은 우리를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으로 이끕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판결은 그가 만든 모든 것이 선하고 매우 선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뱀이 어떻게 반역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첫 인간 부부의 죄는 우리에게 죄의 인간적 차원을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악한 유혹에 굴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죽음의 선고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견해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다는 암묵적인 비난을 발견합니다. 특정 명령에 대한 반항, 즉 범법, 하나님과의 궁극적 교제의 희생, 수치심과 죄책감의 도입,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열렬하게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 고통과 상실의 도입, 그리고 죽음의 다양한 차원을 발견합니다.

모두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첫 살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5장은 후렴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죽고, 그는 죽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 뒤의 4장은 홍수의 심판과 그에 따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11장에서 명확히 밝히듯이, 인류는 그렇게 해서 개선되지 않습니다.

성경 스토리라인의 드라마를 계속 훑어보며 족장 시대, 광야 방랑의 세월, 사사 시대, 다윗 왕조의 쇠퇴, 유배의 불안과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죄악의 타락에서 죄의 모양과 깊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시대에 마주하신 사람들도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인류에 대해 한 방대한 고발, 로마서 1 :18-3 :20은 십자가가 무엇을 성취했는지에 대한 가장 깊은 진술 중 하나를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드러내는 것의 많은 부분은 신격의 각 구성원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맥락에서 드러납니다. 신약성경의 첫 장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예수라고 불릴 것이라고 확립한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1을 인용합니다.

카슨은 그가 NIV, 즉 신국제판을 인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옛 언약의 성막 성전 제도는 죄에 대해 뭔가 이해하지 못하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확실히, 히브리서에서 놀라울 정도로 주의 깊게 다루어진 그 반대 유형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를 고려하든, 구원하시는 사랑의 특정 대상을 고려하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천둥을 치시든 예루살렘을 향해 울부짖으시든, 개별 신자에게 초점을 맞추든, 하나님 백성의 언약적 정체성을 고려하든, 예루살렘에 쏟아지는 일시적인 심판에 경악하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열렬히 기대하든,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반은 죄이며, 자비가 풍부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백성의 선을 위해 죄와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입니다. 죄는 “불경이나 신성 모독처럼 하나님께 직접 공격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엄청난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제 오래된 기준을 대체했습니다. 이 책은 코넬리우스 플랜팅가이고, 그는 닐 주니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Not the Way It's Supposed To Be, A Brief Treatment of Sin*, Erdmann's 1995. 강력한 책입니다. 매우 강력한 책입니다. 확고하게 복음주의적이며, 문화에서 얻은 현대적 삽화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전 보석과 달리, 이 책은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책이고, 약간의 희망을 줍니다. 저는 이전 강의에서 Henry Fairley의 책인 *The Seven Deadly Sins Today*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교회 역사, 특히 중세 시대에는 죄의 끔찍한 추함을 묘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많이 다루었던 일곱 가지 대죄가 있었습니다.

헨리 페어리, 페어리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의 사회 비평가가 된 영국의 사회 비평가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놀라운 책을 썼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그것은 너무 좋고, 영적인 엑스레이 기계와 같으며, 동정심 없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제 학생들은 책에서 그 남자가 마지못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날 과제를 내야 했기 때문에,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20분 정도 책에 대해 토론할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그가 옷장 속의 기독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우리는 그 남자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을 마지못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그 책이 정말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하고, 날카롭고, 매혹적인 아름다운 선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폭식과 탐욕과 정욕에 대한 장이 있고, 오, 세상에.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불신자이기는 하지만, 그는 주저하는 사람이고, 그의 책은 오늘 당신이 저에게 보여준 것을 성취합니다. 그것은 제 학생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빌린 자본을 사용합니다.

그는 "당신은 반드시 어거스틴을 읽어야 합니다. 천로역정을 읽지 않았다면, 당신은 교육받지 못한 인간입니다."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말합니다. CS 루이스, "아, 그는 최고입니다."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빌린 자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기독교 작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의 직업은 폭로자였습니다. 그는 사회 비평가였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것에 매우 능숙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꿰뚫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은 훌륭했지만, 해결책이 없어서 우울한 책이었습니다.

플랜팅가의 책 *Not the Way It's Supposed To Be, A Breif Treatment of Sin*이 나왔을 때, 페어리의 책을 대체했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일부 삽화가 실제 생활에서 역겹기 때문에 움찔합니다.

아, 생각나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싶지도 않아요. 시청자들이 아프게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끔찍해요.

어쨌든, 훌륭한 책입니다. 닐. 플랜팅가, *그것이 예상했던 대로가 아닙니다*. 그 표현은 신학자들이 죄의 교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흔해졌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는 반항입니다. 저는 카슨의 말을 계속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반항이며, 그의 명확한 말씀에 대한 반항이며, 그의 지혜롭고 질서 있는 통치, 그의 왕국, 그리고 섭리에 대한 반항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의 영적, 육체적 죽음을 초래합니다.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완벽한 정의, 완벽한 정의로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정죄하실 수 있었고, 아무도 그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성경 스토리라인은 순전히 은혜로 하나님을 묘사하며, 모든 언어와 종족의 수많은 남자와 여자를 구원하여 그들을 안전하고 마침내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않고 죄의 영향조차 완전히 사라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합니다. 제가 지옥 교리에 대한 전문가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다행히도, 또는 불행히도,

새 세상에서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새 창조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도시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세 장에서 언급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거나 악한 자들이 멸망될 것이라고 말하려는 시도는 성경 이야기의 끝과 완전히 모순됩니다.

요한계시록 20, 21, 22장에는 악한 자에게 영원한 형벌이 분명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싶으신가요? 요한계시록 23장이 필요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카슨은 우리가 죄가 성경에서, 그리고 따라서 성경에 충실한 기독교에서 하는 엄청난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긍정적으로, 죄에 대한 냉정하고 현실적인 이해는 성경을 지각적으로 읽는데 필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책임 있는 해석학에 필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 말하는 내용에 의해 형성되는 몇 가지 신학적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차례로 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형성합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드러내는 구절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구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죄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드러내는 수많은 계몽적인 구절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6과 7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바위 틈에 숨어 있는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는 것이 허락되지도 않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3:20. 아무도 나를 보고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잔광의 끝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

제 신학 교수는 그것을 신의 후일이라고 불렀고, 때로는 신의 뒤라고도 부르는 법 자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듣는 것이 허락되었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은 모세에게 말로 자신을 최고로 드러내셨고 , 그 말씀은 동시에 움직이고 퍼즐을 풀었습니다.

당혹스럽습니다. 기울임체로 된 단어는 당혹스러운 것이 무엇인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주님, 주님,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

저는 출애굽기 34장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성경적 정의와 같은 것으로,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신약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의 기초가 됩니다. 주님, 주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분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신실함이 풍부하며, 수천 명에게 사랑을 유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울임체와 용서하는 사악함, 반항, 죄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을 처벌하지 않은 채로 두지 않습니다. 그는 부모의 죄를 3대, 4대까지 자녀와 그 자녀에게 벌을 줍니다. 이탤릭체 끝. 인용문 끝.

여기에 사악함, 반역,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인을 처벌하지 않은 채로 두지 않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상한 변증법일까요? 아마도 절차를 번갈아 가며 하는 것일까요? 갈보리에서야 긴장이 완전히 해소됩니다.

확실히, 이 이상한 긴장의 초점은 죄입니다. 아니면 밋세바를 유혹하고 그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는 냉혈한 계획 이후 다윗의 말을 생각해 보세요. 깨어짐과 회개로 낮아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시편 51:1) “당신께만 죄를 지었고 당신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이사야 51장 4절). 물론 어느 정도는 노골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다윗은 밋세바, 그녀의 남편, 그녀의 아이, 그의 가족, 군 최고 사령부, 그리고 그가 최고 행정관으로 섬기는 국가 전체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깊은 의미에서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이 신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평 축을 따라 죄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의 수평적 죄이든, 집단 학살의 수평적 죄이든,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죄를 정말 사악하고 본질적으로 가증스럽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 처벌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깊이 우리를 자신을 위해 만드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대한 죄이며, 우리는 언젠가 그분께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죄에 대한 회개의 이 시편은 죄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밝힙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기독교 연구는 적절하게 명명되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에 대한 교리를 신학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모두 신학입니다. 모든 교리는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네 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 53:4, 5, 10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에게 맞고,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 찢렸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짓밟혔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준 형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치유됩니다. 그러나 그를 짓밟고 고통을 주는 것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드리더라도 그는 그의 자손을 보고 그의 날을 연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은 그의 손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 53:4, 5, 10. 여기에 야훼의 의도에 의한 형벌 대체가 있는데, 우리의 고통, 우리의 범법, 우리의 죄악, 우리의 형벌, 우리의 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 복음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신에 대한 깊은 죄책에 찬 반향으로 인간의 도덕 질서를 가리키는 방식을 떠올려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 죄 많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16의 말씀은 비할 데 없는 은혜를 외칩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세상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맥은 이 은사의 위치가 성육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음으로 들어올려진 데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14절과 15절의 들어올려짐과 흠의 일관된 사용을 비교해보세요. 오, 나는 들어올리고, 나는 들어올립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죄 많은 세상을 위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에 의해 주도되며, 가장 훌륭하게 표현된 것은 그의 아들의 선물에서, 그의 죽음만으로도 정죄의 선고를 해제하기에 충분합니다. 17절과 18절은 죄 속에서 계속되는 그러한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이 몇 구절조차도 하나님, 그의 성품, 그의 구원의 목적, 그의 사랑, 그의 진노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가 해결되는 축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죄 사이에 유사한 역학이 우세한 수백 개의 구절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에 국한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유명한 장의 끝에서 바울은 호세아서 1:13 , 14에서 발췌한 단어로 두 가지 수사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호세아서 1:13, 14. 인용문, “오 사망아, 네 승리는 어디 있느냐? 오 사망아, 네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55.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답합니다. “죽음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옵소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과 57절. 다시 말해서, 죄의 죽음을 가져오는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패배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부활에서 최고로 행하신 일의 과시는 죄와 그 모든 잔혹한 권세에 의해 야기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드러내는 수많은 계몽적인 구절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와 , 카슨은 훌륭하지 않나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드러내는 구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활동적인 신학교 교사 경력의 끝나갈 무렵, 카슨은 그가 쓴 책에 대한 추천서를 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특히 무슬림 국가에서의 전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알다시피, 그건 모욕적인 언어야.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부르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물론, 카슨은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동정심을 가지고 표현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 추천서를 쓰고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의 이메일 주소는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무엇인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는 압도당할 테니까요. 여기 한 남자가 자신의 경력 동안 매달 어딘가에서 가르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나 말고, 카슨. 내가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어. 내가 말했지, 전에 너한테 이런 말 한 적 없지만, 지금이 좋은 때일 수도 있다고.

당신은 나의 동년배들보다 더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이로만 동년배들일 뿐입니다. 선물로는 아닙니다.

신은 선물을 준다. 그는 이메일을 다시 보냈고, 그는 우리 모두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어깨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나는 모건에게 전화해서, 나는 지금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는 제 흔적을 남겼습니다. 제 경력에서 두 번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때는 캠핑 사역에 있는 두 학생과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전에 강의에서 말했듯이 Jim Packer, JI Packer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Morgan과 저는 Zondervan에 대한 매우 중요한 학술 서적을 공동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Packer는 보편주의에 대한 장을 쓰기로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강력합니다.

그는 말했다, 마침내 내 파일, 보편주의에 대한 수백 개의 참고문헌에 대한 내 카드 파일을 내려놓게 됐어. 맙소사, 그는 그렇게 했어. 그리고 그는 직설적이고 친절했지만 강타적이었다.

어쨌든,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여자들에게,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다른 참여자들이 있는 책 중 하나였고, Hell Under, Hell on Trial의 무료 사본이었습니다. 제가 1995년에 쓴 책으로, 대학 수준과 학습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등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간단한 언어로 표현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에드워드 퍼지와 InnerVarsity 에서 토론을 했는데 , 그는 소멸주의를 긍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원한 형벌을 가르쳤습니다. *지옥에 대한 두 가지 관점.*

Hell on Trial 사본이 필요하다고 했어 . 내가 *Hell on Trial* 사본이 필요하다고 했어 ? 네가 그 책의 뒷 표지에 추천사를 썼잖아.

어떻게 그럴 필요가 있었어? 그리고 나는 그의 말을 잘랐어. 그들이 나를 땅에 묻을 때까지 기억해. 나는 그것을 너무 많이 표시했어.

또 다른 사본이 필요해요. 할렐루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 두 학생은, 당신들이 제 증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 명성에 대한 두 가지 주장입니다. 그리고 신은 죄인에게 선합니다. 하지만 카슨은 제게 엄청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가 수년에 걸쳐 한 일은, 그의 논문부터 시작하여, 보다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읽기에 무거운 내용입니다. 신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성경적 관점 의도.

그 책부터 시작해서, 그가 한 일은 제가 수년간 성경의 가르침을 해석적으로 연구하면서 진실이라고 알았던 것들을 분명히 표현한 것이었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있고, 그것이 바로 제가 알고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듭거듭, 실제로 성경적이지만 저 같은 덜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분명히 표현함으로써 제 가르침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죄, 저는 여전히 카슨의 죄 교리 소개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사탄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는 사탄과 악마의 세력의 역사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죄는 우주적, 악마적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은 죄로의 첫 번째 인간적 하강을 자극합니다. 창세기 3장은 나중에 사탄 자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창세기의 본문은 그가, 마귀가 처음에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의 서두에서 그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뱀은 하나님과 비슷한 독립적인 지위가 없고, 더 어둡지만, 더 어두운 색조를 띠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는 신과 같은 독립적인 존재가 없지만, 더 어두운 색조를 띠고 있습니다. 즉, 인식론적, 존재론적 이원론은 거짓입니다. 알겠습니다.

선과 악의 영원한 원리는 없습니다. 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신이 악을 창조하지 않았고, 신이 사탄을 악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속의 모든 것이 매우 좋았으므로, 창세기 131장에서 뱀도 마찬가지로 좋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가 창조되었을 때, 그는 좋았습니다. 명백한 참조는 추론입니다.

명백한 추론은 뱀이 아담과 이브의 타락에 앞서 어느 시점에 스스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끌어낼 준비가 된 추론입니다. 유다서 6절은 죄가 인류를 넘어서는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따릅니다.

저는 인간 종족을 넘어선 인간 죄의 결과, 창조 질서의 타락, 창조 질서의 좌절, 속박, 쇠퇴에 대한 복종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로마서 8:20-21). 오히려 저는 천사들 자체의 반향적인 천상의 존재들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해 비교적 적게 언급하지만, 작은 창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선행적 타락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이는 매우 계몽적입니다. 우리 자신의 투쟁 인용문의 일부는 이 어둠의 세상의 권세와 하늘 영역에 있는 악의 영적 세력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12.

욥기의 처음 두 장에서 다시 엿보이는 투쟁에는 우주적이고 천상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 천사적 비인간적 죄의 세 가지 추가 특징은 성경에서 인간의 죄가 전개되는 방식에 대한 일종의 대조를 제공합니다. 첫째, 최초의 인간 죄는 인류를 감염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전체 인류에게 가져왔습니다.

최초의 천사의 죄는 죄를 지은 자들을 타락시켰지만 나머지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두 종족에서 죄가 구조화된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인간과 천사는 천사의 비유기적이고 비생성적인 본성에 의지합니다. 예수에 따르면 천사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30은 어디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로 타락한 인간을 위한 구속자가 일어났지만 천사를 위한 구속자는 없습니다. 인용문, 분명히 그가 돕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히브리서 2:16. 2:5와 비교하십시오. 악마 무리는 전혀 희망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끝없이 의식적으로 괴로워할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태복음 8:29. 요한계시록 20:10과 비교하십시오. 그들 중 누구도 인용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마태복음 11:28이 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최소한 이 진리를 인정하면 구원받은 남녀에게 은혜의 주권에 대한 경외심에 찬 겸손과 감사가 생겨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는 타락한 천사들을 구원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셋째, 어떤 텍스트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imago*

dei 로 만들어졌다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 주장은 인간에게 적용됩니다. 창세기 1:26-27.

게다가 이 세 가지 관찰을 종합해 보면, 죄가 완전히 없어진 후, 하나님의 구속받은 형상을 지닌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지복의 환상입니다.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4. 하나님의 면전에서 항상 날개로 얼굴을 가리는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들과는 달리.

이사야 6:2. 요한계시록 4:8과 비교해보세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죄의 결과가 거듭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죄의 결과와 유사한 면이 적어도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의식적 고통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0:10. 요한계시록 14:11과 비교해보세요. 사탄은 마침내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때 사탄이 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순수하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는 악할 것이고 벌을 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이 정화된 인간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성경적 증거는 없습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제3의 장소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가톨릭 신학이 여전히 가르치듯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서가 보여주듯이, 그것은 거짓된 희망입니다. 지옥의 주민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정당화보다는 자기 정당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신을 미워하면서도 자신을 사랑할 것이고, 죄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계속 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개가 없다면 형벌은 계속됩니다.

셋째, 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묘사됩니다. 셋째, 지금까지 저는 주로 죄라는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했지만, 죄는 여러 단어, 표현, 서사적 묘사로 묘사됩니다. 죄는 범법으로 볼 수 있으며, 범하는 법을 전제로 합니다.

죄는 때때로 우리를 이기는 힘으로 묘사됩니다. 죄는 종종 피할 수 없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는 흠, 표적을 놓친 것, 어리석음, 육체에 묶인 것으로 상상할 수 있으며, 한 영어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악명 높은 개념, 불신, 노예 상태, 영적 간음, 불순종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죄는 개인의 범죄이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이고 여러 세대에 걸쳐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는 3대와 4대까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히스기야 시대에 저지른 죄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라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성경은 종종 죄를 개인의 죄책이라는 측면에서 묘사합니다.

다른 때는 어떤 당사자의 죄가 어떻게 다른 당사자를 절망적인 희생자로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아이 전투에서 아간의 죄는 그와 그의 가족을 죽였습니다.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 사자굴에 던지려고 했던 반대자들의 죄는 다니엘서 6장에서 고발자들이 가족과 함께 던져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 적용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우리가 우리의 사악하고 나쁜 본보기와 신에 대한 반항으로 자녀와 손주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카슨은 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묘사 중 일부는 그 단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서사에서 발생한다고 썼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죽일지 팔지 논쟁하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는 동안 주고받는 상호 작용에 대한 묘사를 생각해 보세요.

더욱 강력하게, 사사기의 마지막 주요 서사는 영혼을 파괴하고, 신을 모독하는 부패와 쇠퇴를 묘사하여 이야기 속의 겉보기에 좋은 사람들조차도 충격적으로 음란합니다. 성경이 죄를 묘사하는 다면적이고 강력한 방식에 대한 깊이 증가하는 민감성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는 신학적 구성에 얽혀 있습니다.

넷째, 죄가 많은 단어, 표현, 서사적 묘사로 묘사되는 것처럼, 이전 요점도 강력한 신학적 구성에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너무 많고 풍부해서 자세히 다루려면 매우 긴 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중요도 순서 없이 그러한 구성 몇 가지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인류학. 성경의 처음 두 장은 죄 없는 인간을 묘사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두 장은 변화되고, 용서받고, 죄 없는 인간을 묘사합니다.

그 사이의 모든 장은 죄 많은 인간을 묘사하거나 전제하지만, 예수의 인간성을 묘사하고 그가 전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장은 예외입니다. 나머지 우리는 죄의 보편성과 범위를 제시하는 우리의 죄성에 대한 설명을 읽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3:9-20과 우리의 연방 수장인 아담과의 연결, 예를 들어 로마서 5:12-21. 이러한 증거에서 신학적 공식화가 몇 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요약하려고 시도합니다.

우리는 원죄와 전적 타락에 대해 말하면서, 그러한 표현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설명합니다. 메시아 예수를 제외하고는, 에덴과 타락 사이, 그리고 타락과 부활 이전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존재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선택적인 특성이 아니며, 그렇지 않으면 흠이 없는 존재에 느슨하게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경험을 정의하는 만연한 힘과 죄책감과 비극이며, 은혜를 간절히 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얹힌 두 가지 신학적 구성.

이 글의 서두 문단은 죄와 구원론 사이의 몇 가지 연결 고리를 지적합니다. 성령론, 성령 교리, 특히 타락한 인류를 단순히 자연적 존재와 성령을 가진 존재로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고린도전서 2:10-15). 죄의 역사의 효과는 메커니즘이 모호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각주를 하나 언급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지혜와 경이, 과학과 예술에서의 공통 은혜. 인용하자면, 그것은 자연인과 영적인 사람의 대조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으로, 성경은 단순히 성경을 고려하는 사람과 고려하지 않는 사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언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의 구별을 설정함으로써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고린도전서 2:12).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갈라디아서 5:22-23). 이것은 육체의 행위에 반대합니다(19-21절). 이것은 죄를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요소, 즉 개종에 대한 몇 가지 논평으로 제한합니다. 종교 사회학에서 대중적인 용어로 개종은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의 충성심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불교도가 무슬림이 되거나 그 반대가 됩니다.

도교도가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무신론자가 되고, 무신론자가 힌두교인이 됩니다.

모든 경우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개종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 사람이 교파나 충성을 바꿀 때 개종이라는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교도가 로마 가톨릭교로 개종했다고 말합니다.

카슨은 침례교도입니다. 아니면 그 반대입니다. 하지만 고백적 기독교에서는 개종이 훨씬 더 정확한 초점을 맞춥니다.

현상학적으로, 사람이 진정으로 기독교인이 되면, 그는 또는 그녀는 종교적 충성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개종 단어 그룹을 순전히 설명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현상의 근거에는 초자연적인 변형이 있습니다.

성경 용어로,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났고,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때 눈이 멀었던 눈이 이제 보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발견되었습니다. 자연은 초자연에 의해 추월되었습니다. 관계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죄인은 하나님과 화해되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그 사람은 이미 시작된 왕국에 속해 있으며, 따라서 변형된 부활과 모든 것의 완성에 대한 확실하고 확실한 소망 속에서 산다. 최종

결과는 완전함일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죄나 악의 얼룩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런 용도에서 개종은 종교적 충성을 바꿀 때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단어의 가장 강력한 신약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신학적 의미에서 개종에 내재된 변화는 개인의 삶에서 죄를 직면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피할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화. 현재 목적을 위해 위치적 또는 확정적 성화와 같은 범주는 제외합니다. 그러면 거룩함에서 성장한다는 신학적 개념이 남게 되는데, 이 개념은 성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카슨은 개념적 오류라는 단어를 피하는데, 이는 그 현실을 말하려면 거룩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하는 단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그 법을 만들었을까요? 성경 저자들은 그런 법을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숙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계속 전진합니다. 인용하자면, 그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신 것을 붙잡기 위해 계속 전진합니다. 12절, 그가 힘쓰는 것은, 인용하자면, 앞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부르신 상을 얻기 위한 목표입니다.

14절, 부활의 존재. 11절과 21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적들에 반대합니다. 그들의 운명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이며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에 있습니다. 같은 빌립보서 3장의 18절과 19절. 성숙한 사람들은 바울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그의 모범을 따르며 우리가 이미 이룬 것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다시 말해, 성화는 지금 바울과 다른 신자들 안에서 역사하며, 궁극적인 영광에서 마침내 성취될 것의 시작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을 피하는 복음에 대한 확고한 충성이 포함됩니다. 인용문, 육신에 대한 신뢰, 3절, 그리고 인용문,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에 대한 열정, 9절. 다시 말해, 성화는 죄를 죽이는 것과, 예수님과 일치하는 것과, 지금 다가올 절정의 변화를 기대하며 도덕적, 영적 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카슨의 소개를 계속 이어가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더 많은 좋은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인간성과 죄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9, 죄의 교리, DA 카슨, 죄의 본질적 중요성입니다.